

3년 만에 하나 된 자리, 노사한마음대회에 모입니다

고객홍보팀



팀은 달라도
우리는 한마음



5월 7일 토요일, 뽕한 햇살에 눈 크게 뜨기도 버거움 만큼 화창했던 이날. 축산 불품질평가원 전 직원이 '노사한마음대회'라는 이름 아래 세종특별자치시에 모두 모였다. 평소에는 전국 10개 지원, 28개 출장소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이다.

축산불품질평가원은 축산불능금제와 이력제, 유통조사 등의 사업을 통해 우리 축산물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며 사람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일이지만,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축산 최전방에 있는 만큼 모든 직원이 다 모일 기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아쉽다. 녀르고 벼른 끝에 움식이려 하다가도 방역 문제 한 번 터지면 우리 축산의 안전을 위해 바로 백지화되기 일쑤기 때문이다. 이날의 행사도 약 3년 만에 전 직원이 함께 한 것이었다.



맞으면 최소
전치 3주다!!

높은 분들
안마를 받습니다
그려~

행사의 무대가 된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농 일원은 아침 일찍부터 오래간만의 전사적 행사를 맞는 들뜬 마음들이 술렁였다. 벌써부터 짙은 햇빛이 무던히도 더욱 날씨를 예고하고 있었지만, 회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이들은 그쯤은 장애될 것 없다는냥 그저 즐거웠다.

밀리서부터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고 손을 흔들며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운동장을 둘러 설치된 총 4개-공장·전문·소문·도전팀의 천막에서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 '아이고~', '이야~' 하는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타의 모범을
보인 네 남자



이러한 움직임은 OX 퀴즈를 할 때도 계속 이어졌다. O/X 답을 찾아 이동하다가도 짬짬이 못다 한 인사를 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90도 인사에 악수를 나누느라 곳곳에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 일쑤였던 것. 물론, 의욕 충만한 축평원 임직원들이기에 반가움은 곧 상승하는 전투력에 물뿜었다. 조금만 움식여도 얼굴이 벌겍게 날아 오를 만큼 햇살이 정말 살처럼 쏘아댔지만 각 조 조장들은 사전 점수를 받기 위해 그저 더 흥겨운 춤사위를 풀어내는데 몰입했다. 줄 파두타기를 위해 하나가 된 조원들, 단체 줄넘기 게임을 하느라 온몸을 던져 줄을 돌리고 또 넘던 사람들은 그 순간 축산인이 아닌 체육인이었다.

가수 운명은 노래 제목 따라간다던가. 이날 각 팀은 묘하게 팀명 따라 다른 특징을 보였다. 특히, 토너먼트로 대결한 피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처음으로 대신한



당첨 기념 휴~... 진행요원은 화났지 말입니다

공정팀과 전문팀은 한 경기를 끝내는데 소통 VS 도전에 비해 오래 걸렸다. 공이 돌 때 여자하면 내 공, 네 공을 두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늘어 결국 진행요원이 총재하기 일수였기 때문이다. 반면, 소통팀과 도전팀은 사회자가 이쪽은 공정 VS 전문과 달리 전략이란 게 없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금방 끝났다. 공징 VS 전문 쪽이 하나도 채 안 끝났을 때 이미 두 번째 게임 막바지 단계였다. 대신 짧고 굵게, 훨씬 지열했다.

그리고 이날의 백미, 베스트 3중 하나가 피구 결승에서 나왔다. "살려주세요" 혹은 "피하지 말고 덩덩히 맞읍시다", 팀 성향만 큼이나 극과 극으로 갈리는 인사들 속에 시작된 경기는 뜨거운

날씨 속 한낮의 게임에 지쳐 소극적으로 보였다. 처음에만, 곧 '축평원 직원 선발 기준에는 전투력도 있나?' 심을 만큼 양측 모두 격정적으로 달려들었다. 이쯤 되니 여자라고 봐줄 것도 없고, 공 맞는 '뽕' 소리도 주변 아파트 단지를 울릴 만큼 커져갔다. 점프까지 해서 힘껏 공을 던지는 모습은 피구왕 통키가 형님 혹은 아버지리 칭찬직했다.

그럼, 베스트 3의 나머지 2는 무엇일까? 하나는 단연 노사 제기 치기가 아닐까 한다. 노조 측이 봐준 것이라는 의혹이 짙었지만, 예상보다 뛰어난 제기치기 실력을 보인 사 측의 선전에 결국 공약을 대신해 노조 측이 사 측 대표들을 업고 반환점을 돌았다. 그리고 즉석에서 이어진 사 측의 노조 측 마사지, 사 측에서 시작했지만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던 모습은 '노사한마음대회'라는 행사명, 그 자체였다.

나머지는 그림 같은 한 컷을 남긴 단체사진 촬영. 벗지지만 역광을 던고 찍어야 할 촬영지, 게다가 많은 인원이 모두 모이재니 자리 정리에만 시간이 한참 걸렸다. 하지만 결과물은 이렇다. 고루 섞여 알록달록 화사한 팀 조끼가 멋진 배경과 더불어 사진을 밝히는 한 컷. 쉽게 만들어질 수 없는 장면이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KAPE누리를 통해 자랑하고 싶다. ☺

기관장도 한아름... 아! 그냥 드러누워~

